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인교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불교 총회 출판물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angan역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만상은 비록 잠시 동안 타락한 상태일지라도 절묘하고 신비스러운 것이다(시 95:5-6).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차 있다(렘 10:12-13). 살아 있는 생물의 한 세포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보다 더 신비스럽고 또한 더 복잡한 것임을 느끼게 된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진설하셨나이다”(시 89:11). 이러한 우주는 과연 무한한 것일까? 하나님은 이토록 광대한 우주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공간(Space)은 가장 미묘(극소)한 것에서부터 무한한 것까지 뻗어 있는 듯한 연속체 안에서 시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두 방향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한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초 현미경적인 공간을 살펴보자. 이 수준에 있는 미립자들, 원자들과 분자들은 계속해서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미소분자들이 무엇과 같은 것인지는 눈으로(각각적으로는) 포착할 수 없으나 우리가 만지는 모든 물체는 이것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더 묘한 것은 이 분자들은 물체가 아닌 것이다. 이 분자들은 빗처럼 덩어리, 곧 물체로 나타나지 않으나 파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이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존재인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확실히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은 공간 자체도 포함한 것이다(시 45:12).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하늘을 명철로 펴셨다고 성경은 말해 주고 있다(잠 3:19).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히 11:3; 시 33:6-9). 하나님께서 공간의 주인이시다(사 42:5). 또한 집행하고 주관하신다(단 5:8; 사 40:26). 창조 이전에는 미리 존재했던 원자들, 원자재가 없었다. 다른 창조물들은 시간이나 공간, 물체, 힘과 액체, 고체들이 이미 존재했음을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그 복잡한 우주만물과 천사와 인간과 같은 피조물을 만들 만큼 충분히 자상하다. 근대에 와서 과학은 보이는 것들이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임을 발견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구속의 역사를 설명한다. 말씀으로 아들로 이루시고 진행하심을 언급한다(히 1:2-3). 아직도 계속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다(고전 8:6; 골 1:16-17).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조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난 것임을 알아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집회)

야 한다. 하나님께서 시공간 밖에 계시지만 시공간 안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자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지라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창조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그것이다. 4차원의 시공간 속의 연속체가 생명과 우주의 근원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 또는 특별 계신인 영적인 차원이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우주보다 양적으로만 큰 것이 아니다. 그의 존재하심 자체가 우주의 존재와 질적으로도 다른 것이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 의 존하지만 하나님은 공존하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측정 불가능하다(행 17:24; 고후 3:17; 대하 6:18). 이와 같이 천사들도 또한 다른 차원에 있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깝게 있다.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2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4차원에 있는 것들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천사와 같은 피조물도 어떤 종류이든 시공간 안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디에서나 항상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 안에 계시다. 그러나 이 전체 공간이 하나님을 송두리째 포함할 수는 없다(행 7:48-50).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와 친밀한 관계가 있으시며 그가 지으신 모든 것 하나하나의 주인이시다(시 2:11; 시 113:5-6). 성경에서 보는 천문학적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이다. 성경에서는 우주의 해이될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축약할 수 없는 위대함으로 나타내지만 이것들 또한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시 89:5-6).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기에 그 위대함은 상대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 위에 관용을 가지고 계시다. 사실상 하나님은 현재의 우주를 멸망시키시고 다른 것을 창조하실 것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다(베후 3:12-13; 계 20:11, 21:1). 구약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 하였고 그것은 십자가와 믿는 자들이 중심이 된 창조이다(사 65:17-18, 66:1-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사 66:22).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상한도 없고 하나님의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것이고 다시는 어두운 밤은 없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계 22:3-5).

성탄 찬양을 통한 은혜

의 장이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때로는 충만한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기쁨으로, 때로는 좌와 의 절절한 투쟁으로 한없이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칠 때도 있지요.

그렇게 세상에서 이모양 저모양으로 살다가 찬양과 기도와 한국의 메시지와 선교의 삶이 있는 찬양이 있는 은혜의 장소, 금요집회에 올 때마다 크나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도 살아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항상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지만 저 영원한 하늘 나라를 소유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아담을 잃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은혜로운 찬양은 한 주간의 모든 수고를 위로라도 하듯 머리 숙인 영혼을 이루만지며 해속 같이 사무치며 잔을 흐릅니다.

폭력의 난치로 온 세상이 지저 있을 때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찬양. ‘오 주님! 찬양을 통해 충현의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열광 있는 찬양 속으로 들어오라는 목사님의 눈물의 외침에 어느새 우리 모두는 충현찬양대가 되어 출렁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총을 입은 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과 동행을 체험하는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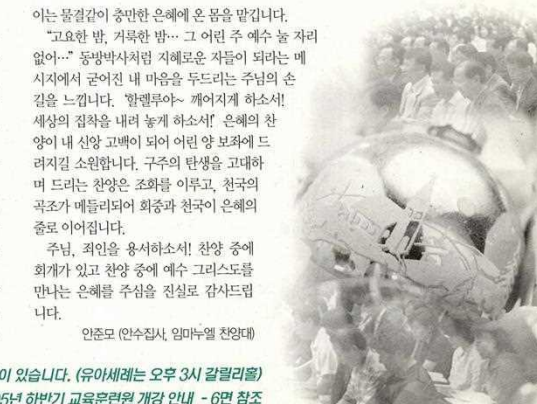
이는 물질감이 충만한 은혜에 온 몸을 맡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어떤 주 예수 놀 지리 없어...” 동방박사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는 메시지에서 굳어진 내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깨어지게 하소서!’ 세상의 짐을 내려 놓게 하소서! 은혜의 찬양이 내 신앙 고백이 되어 어린 양 보좌에 드리길 소원합니다. 구주의 탄생을 고대하며 드리는 찬양은 조화를 이루고, 천국의 곡조가 메들리되어 회중과 천국이 은혜의 줄로 이어집니다.

주님, 죄인을 용서하시라! 찬양 중에 화제가 되고 찬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안준도 (민주집사, 김기우씨 찬양대)

*오늘(28일) 찬양대예시 시 학습 :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오후 3시 갈릴릴)

*2005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안내 - 6번 참조



THE LORD'S SUPPER

⁽²³⁾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²⁴⁾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²⁵⁾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1 Corinthians 11:23-25)*

In today's Bible verses, Paul reminds the Corinthian church that he passed on Christ's words to them just as he received them,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v. 23). Christ said that He gave His body and blood specifically for His disciples. It is something they desperately need. As such, He asks that they remember His sacrifice for their salvation.

The Lord's Supper is a meal in which Christians partake because they are hungry and thirsty for the Lord Jesus Christ. His words leave no misunderstanding. After supper, on the night of His betrayal, Jesus took some bread from the table, gave thanks,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v. 24).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v. 25).

Sadly, most Christians never hunger or thirst after Jesus Christ. They hardly even think of Him. If you are a true Christian, you should think about Jesus' body and blood, His sacrifice, and not just for yourself but for others. I am sure most of you love your family and always remember their birthdays. You take the time to celebrate and rejoice with them because you love them and have a deep relationship with them. It should be even more so with Jesus. He loves you. He sacrificed His life for you. He gives you eternal salvation. His name is Immanuel, which translated means "God with us" (Mt. 1:23).

Do you hunger and thirst for Jesus, or do you hunger and thirst after earthly things, like money, vacations, clothes, houses, cars, etc... What a shame to desire anything or anyone more than Jesus. He did everything for you. His incarnation came through the virgin Mary. The Son of God became the Son of Man. He lived and suffered earthly life in the same way you do. His trials were the same as your trials,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has been tempted in all things as we are, yet without sin" (Heb. 4:15). He humbly came to this earth to show you how to practice your faith. Jesus maintained total obedience to His Father, "Although He was a Son, He learned obedience from the things which He suffered. And having been made perfect, He became to all those who obey Him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Heb. 5:8&9).

Jesus Christ humbled Himself to death, in accordance to His Father's will, and obeyed God all the way to the cross,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Phil. 2:8). This is the meaning of the Lord's Supper. Jesus made it for you, so that you can remember that His body and blood covers your sin. He wants to cleanse you, so that you can receive God's salvation.

Jesus made the Lord's Supper before He left this earth. He promised His people,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said to you" (Jn. 14:26). He also promised, "When the Helper comes, whom I will send to you from the Father, that is the Spirit of truth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He will bear witness of Me" (Jn. 15:26). He even promised,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 (Jn. 16:13). Jesus gave us these promises and made the Lord's Supper so that we could teach and bear witness to others about Him in truth. He said,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8-20).

Paul experienced Jesus' promises, "But the Lord stood with me and strengthened me, so that through me the proclamation might be fully accomplished, and that all the Gentiles might hear" (2 Tim. 4:17). He restated Jesus' words concerning the Lord's Supper to the Corinthian church, and even explained to them the pure meaning of Jesus' body and blood for our salvation. Jesus wants us to bear witness to His death. He commands us to remember His death and second coming,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 11:26). Have you experienced Jesus' promises? Are you keeping His commands?

My dear friend, have you really accepted Jesus as your Savior? Are you a true Christian? If so, then hunger to keep His commands and thirst for His word. Celebrate the Lord's Supper in serious reverence of His death and coming again for you, and for all who call on His name for salvation. As our church celebrates its 52nd anniversary, I pray that we honor and bear witness to our Lord Jesus to the ends of the earth. Come now to the Lord's Supper in remembrance of His death and coming again. Amen. 

주의 만찬

-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 11:23-25)



김성관 목사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23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풍성함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을 채워 주는 자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제자들로부터 배반당하시던 날 밤, 식후에 주께서 떡을 취하시고 축사하신 후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24절).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25절).

참으로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묵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몸과 피, 곧 모든 사람들을 위해 치르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 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마 1:23).

죄사함의 은총

여러분은 예수님을 애타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 예를 들어 돈이나 휴가, 옷, 집, 차 등을 얻으려고 애를 씀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이나 다른 사람을 더 찾는 것은 신자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처럼 인생을 사셨고 온갖 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험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시험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주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믿음의 삶을 보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으신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히 5:8-9).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 내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자람의 모양으로 나

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필 2:8).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 지닌 참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 가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자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깨끗케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한 복음의 증거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 15:26). 주님은 더 확고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까닭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주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바울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도 듣게 하라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딤후 4:17).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의 만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되풀이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지니는 순전한 의미는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재림을 기념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여러분은 예수님의 약속들을 체휼하셨습니까? 또 그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십시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말씀에 갈망하십시오. 진지한 마음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천히라도 설립된 지 5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저는 모든 성도가 땅 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중언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님의 죽으심과 재림을 소망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장로 칼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16교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저희 16교구는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수원, 오산, 화성, 안산, 안성, 평택, 천안, 대전, 7 지역 343개당 8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구 일꾼을 중심으로 심방을 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은 연로하신 독거 노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었지만, 그 염려는 부질 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 사랑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서부터 교회주변 전도까지 빠지지 않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땀흘리는 모습에서 ‘믿음은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교구 표어는 ‘각처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하게’ (고후 2:14)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 저희가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교구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담은 기도입니다. “이리저리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 9:29)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교구 모임 때마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일을 계획할 때마다 교구 식구들이 구역별로 밀려이 급속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지역을 고려해 심방에 힘을 쏟고, 남성 구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교구 식구들의 금요집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서 연합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 전 교구 식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지역별 모임을 가진 후에 지역 7개 팀과 추가 2개 팀, 총 9개 선교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8일(주일) 새가족 초청집회를 가졌고 많은 새가족이 왔습니다. 순조로운 선교팀 구성과 새가족 초청집회를 마친 기쁨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느긋해지려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뜨려 조심하라”(고전 10:12). 선 줄 출발을 한 달 앞두고 ‘믿지 않는 시어머니 수술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1개 선교 팀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뒤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죽으심 죽으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선교를 다녀온 권사님을 뵈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16교구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9월 1일(목) 영성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주변 전도와 일 대일 전도의 결실을 위해 하반기에 한 번 더 새가족 초청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저희 교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더욱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굳건히 주의 제자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무준 (16교구장)

14교구 5지역팀 선교후기

☞ 우리의 모든 계획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갈구해 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로 막 맞추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김영환 안수집사)

☞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현지에서 학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속소 주인이 이 마을 학교의 교장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삭막한 들에 씨앗을 뿌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리 밭을 일구고 씨앗을 예비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위희철 집사)

☞ 한 마을씩 찾아가서 맑고 밝은 어린이들과 순수한 마을 주민들,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만나면 반갑다고 웃음으로 맞는 깨끗한 심령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예수, 예수를 심어도, 전혀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신이 나서 한 한 마을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 피곤을 모르고 달려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을 통해 나태하고 게으른 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할을 깨달았습니다.

(전복실 권사)

☞ 어느 가정에 들어갔을 때 5년 전에 한 선교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언제 다시 와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실까 이 때까 저 때까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셨군요.” 하면서 반가워했고, 우리는 설령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에 감동하여 모두 눈물 흘렸습니다.

(양영자 권사)

☞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시려고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 들고 가게 하셔서 즐겁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생전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땅에서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 다시 내게 옮겨오는 것을 가슴 벅차게 느꼈습니다.

(김영숙 권사)

☞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실 모든 준비를 다 시키신 듯하였습니다. 정말 순하고 친절한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인숙 권사)

☞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저희를 보내는 게 아쉬워 학교 울타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별의 노래를 불러 주신 선교지의 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추미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만나게 하였고 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진순 권사)

☞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어려웠지만 순박하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더 없이 깨끗한 영혼들을 만났다. 주님은 이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니 하나님! 그 복음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소서.

(김자금 권사)

☞ 육의 양식을 위해 온 사람들이 영의 양식을 먹으며 눈물 뜨는 것! 허무한 노래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라 바램!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일 어남을 보았습니다.

(강복희 집사)

☞ 너무나 황량한 선교지를 바라보며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자랄 수 있을지 의심과 실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만 1일이라는 기간을 통해 영혼의 변화를 볼 수 있게 하심으로 그러한 의심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역 기간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셨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역 기간이었습니다. (한연숙 집사)

☞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넓고 넓은 땅을 바라보다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더더욱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최순복 권철)

초롱초롱하던 눈망울

선교지는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그들의 대부분은 불교 신자여서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기독교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시와 탄압이 그 땅의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정말 자유스럽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시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서툰 언어였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 한 학생은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자신의 주소를 건네며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니 꼭 편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초롱초롱하던 눈망울을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골 외딴 마을에 살면서 자신들 가정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문 밖에 십자가를 걸어 놓고 죽는 그날까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노라던 노부부의 넉넉한 웃음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교회를 허가해 주지 않아서 매주일 많은 돈을 들여서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그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하고 불의의 감

수해야 하지만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옆에 불교 신자가 살고 있고 비기독교인이 살고 있지만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 증거는 우리의 사명이기에 전에 당신들의 사명이야 한다며 진지하게 충고하시던 한 집사님의 권면도 기억에 남습니다. 떠나를 날이 가까와 오면서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해 안타까와 눈물 젖던 집사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를 바라보며 이 넓고 넓은 땅 곳곳에 불교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언제 이 땅이 복음화될지 답답하게도 생각되었지만,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열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지금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영장선상에 있으며 선교지를 위한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저희에게 이토록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큰 도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땅은 반드시 복음화될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가지고 온 이 뜨거운 가슴 평생 간직하며 살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김창홍 (집사, 9교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 10:14).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들... 실로 양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어찌 보면 양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지 모릅니다. 겉게 그늘이고 주름진 얼굴은 삶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 덩그러니 남은 노부부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겨우 겨우 살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 주던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고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이 나라에서 그 답답함을 어찌할 줄 몰라 한참한 들뜬에서 목청껏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차 안에서 힘차게 찬송하며 나아가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만난 사람들은 거의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 어느 마을에서 82세 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인상은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악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영생이 보장된 것은 아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 늦게 오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자들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예수 아이워(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라고 외치는 청년의 고백을 들으시고 저분과 저분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일꾼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진리를 저들이 알게 하소서.”



오경진 (집사, 13교구)

온전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해매는 이 건져내야 살리세’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러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 드립니다. 불과 작던가지만 해도 선교에 대한 제 마음은 직장의 환경과 여건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선교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기하게도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어, 직장의 환경과 여건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를 선교지로 보내길 원하심을 느끼며 그 땅의 영혼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직장의 여건들을 허락하셨고 선교지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은 그 땅을 향하신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듯이 그 땅의 영혼들도 많이 사랑하고 계시어서, 그들 또한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를 삼으실지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하길 원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의 삶이 복음 증거의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신 귀한 사역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인도만을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동시에 그들의 마음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열이 주시고 복음을 순수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인도하셨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꼈고 나는 주님의 복음의 도구일 뿐 모든 것을 주님께 하심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한 마디라도 놓칠까 귀 기울여 들은 이런 영혼들과, 눈시울을 적시며 십자가 복음을 기쁨으로 들은 할머니의 얼굴을 기억하며, 뿌리튼 씨앗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자로서 서있길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 드립니다.

김성신 (청년부)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30(월) - 9월 6(화)	17교구 1지역	한승조	8월 30(월) - 9월 8(목)	8교구 9지역	이인원

▲ 현재 지역 중전 선교팀

기간	팀	팀장
8월 22(월) - 8월 30(화)	소망부(2)	한인교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8월 15(월) - 8월 23(화)	대학부(39)	조준성	8월 16(목) - 8월 26(금)	11교구 추기2	전진국
8월 17(수) - 8월 25(목)	할렐루야찬양대	표광범	8월 19(금) - 8월 27(토)	대학부 추기	김형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선생님이다!" 탁아부를 찾는 아이들의 말이다. 우리 선생님! 충현의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각 부서에서 주시는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충현교회 교육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 바로 탁아부이다. 탁아부에서는 100여 분이 넘는 선생님들이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교사 기도회를 시작으로 2부 예배에서 5부 예배, 금요일

집회, 정치기 훈련, 수요일예배(교회주변 전도)까지 각처에서 봉사하는 부모님들이나 대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녀들을 맡기고 가는 성도들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먼저 아이들의 이름표를 달아 주시는 선생님, 각자 맡은 어업을 맡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을 알고 안고 달래 주시는 선생님, 재갈재갈 뛰놀며 경난하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쁘다" 칭찬하시는 선생님들.

예배 시작에 맞추어 찬양과 율동 기도를 시작으로 매주마다 바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돌본다. 성경 구절 암송과 성경 이야기, 새 찬송과 율동 배우기, 수화, 그림그리기, 색종이 접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주일 동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아이들이 말씀과 찬양을 배우고 즐겁게 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다리며 부르는 찬송을 들으면 절로 감사함이 넘친다. '주의 친절함 팔에 안기세...' 찬송가에 있는 어려운 찬송도 곧잘 따라 부른다. 처음 탁아부에 오시는 부모님들은 '파연 우리 아가만 한 시간씩 잘 자네!' 걱정을 하시지만, 아이들은 돌아갈 때 배를 인사도 하고 선생님 손을 뽀뽀한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 탁아부를 통해 부모님들이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 이 아이들이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더 열심히 돌보아야겠다.

김희철 (집사, 탁아부 교사)

말·춤·묵·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2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가르치는 모든 것을 지키라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설교만 하고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가 무엇인가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기뻐한 경문을 이마나 팔에 늘 달고 다닙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해 말씀을 잘 가르치며 율법을 잘 지키고자 노력을 다하는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모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며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영광받고 인정받고 싶음을 받기 위하여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를 본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고자 일하지 않게 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재삼 (집사, 12교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교재연구회에서 교재 편집을 도운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 아는 것이라고는 컴퓨터를 조금 다룬다는 것뿐인데,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막 9:23).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이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교재 한 권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손길을 거쳐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원고야 준비되어야 하며 그다음은 내지에 들어갈 그림과 표지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교정하고 편집하는 일을 수차례 반복했다. 또한 과정마다 수고하시는 분들이 다른데 이 분들은 한 부분을 완성시키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나만 해도 개인 업무를 보면서 이 교재를 편집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 경기가 어려워 손님이 끊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도 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교재연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일하기를 소망한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선교지로 가는 성도들의 손에 전도지와 함께 각국 언어로 번역된 교재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도록 돕는 일이다. 이 날을 소망하며 내가 일할 수 있는 날까지 오직 십자가만을 더욱 붙잡을 것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눅 1:28).

강정자 (집사, 교재연구회)



2005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갈 2:20)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훈련원에서는 9월부터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미 상반기 교육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 오후와 저녁에 개설될 수요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점제로 운영한다는 것과 제직이 거쳐야 할 필수 코스임을 명시하십시오. 교사·찬양대원 양성부는 각각 교사와 찬양대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과 실제로 봉사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전도대원 훈련을 통해서 영혼 사명에 기초한 전도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반기에 개설될 모든 강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곧 교육연구회(2층)로 오셔서 신청하십시오.

수요 성경공부

강의시간: 9월 7일(수) - 11월 23일(수), 총 12주간

교육시간: 오후 3:00 - 4:30 / 저녁반(수요일 2부 예배 후) 8:30 - 10:00

강의장소: 제1교육관 307호(시가사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오후반

제1교육관 407호(예언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오후반

제1교육관 307호(사신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오후반

교사 양성부

강의시간: 9월 11일(주일) - 11월 27일(주일), 총 12주간

강의장소: 배다나홀

강의시간: 매 주일 오후 3:00 - 4:30

찬양대원 양성부

강의시간: 9월 11일(주일) - 11월 27일(주일), 총 12주간

강의장소: 제1교육관 301호

강의시간: 매 주일 오후 3:00 - 4:30

전도대원 훈련

강의시간: 9월 7일(수) - 11월 9일(수), 총 10주간

교육장소: 제1교육관 409호

강의시간: 매 수요일 오후 1:30

(교육훈련원 학생모집 신청서와 교육과목 비지되어 있습니다)

교회 탐방 77 장년1부

40대여!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 중에 더 중요한 시간인 40대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기로에서 무수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찌가 무겁기도 한 시간이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 40대에 주님께로 얼굴을 향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장년1부를 소개해 주십시오!

구성원들은 40세부터 49세까지의 중년교회의 등록 교인들입니다. 주일 낮 12시 40분부터 2시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현재 200여 명의 회원을 52명의 교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최지윤, 부장)

운영 방향은?

천국인교 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교사기도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일과를 키워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지윤, 부장)

특별히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석귀수, 부장)

목사님께서는 교사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학생들도 일일이 면담하고 계십니다. 교사들은 말은 반의 상태를 잘 점검하여 학생들이 귀한 모듬들이 되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임재봉, 총무처장)

장년1부의 교사기도회는 철저한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교사기도회를 합니다. 그 날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숙독하여 교사들이 먼저 말씀을 이해한 후에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분반토론회를 거쳐 메시지를 분명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길남, 부장)

교회 안에서 장년1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추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재봉)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를 잘 깨달아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양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길남)

장년1부를 위해 밤낮으로 애를 쓰시는 부분은?

학생 수가 늘었으면 합니다. 교회 안에 장년1부에 해당하는 인원에 비해 현재의 출석률은 낮을 편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석귀수)
장년1부의 기도의 초점은 십자가를 깨닫고 부응하는데 있습니다. (장길남)

장년1부를 섬기는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과를 배운다는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강희강)
섬김의 분을 보이기 위한 봉사자 교육이 철저합니다.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그리고 새가족부에서 오신 분들의 순수함에 감동을 받지요. (강만호, 신인부 과장)
새가족부에서 오신 분들이 찬송에 은혜받고 우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정희, 신인부 과사)

교사가 온영양체가 된 모습이 정말 보기에 좋습니다. 장년1부에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임재봉)

교사들이 거의 100% 출석합니다. 은혜가 있는 섬김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석귀수)

말씀을 듣고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이정희)

학생들도 데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석귀수)

40대에 세상을 태어나느라 하나님을 택하느냐 하는 영적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치예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최지윤)

주님을 향해 있는 이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은 분명히 예수님 때문이었다. (편지실)

다음주
찬송284장
주 예수 해변서

이 곡은 메리 아테미시아 레스베리(Mary Atemsia Ann) Lathbury, 1841-1913가 1877년에 작사한 찬송이며, 윌리엄 피스크 서원(William Fiske Sherwin, 1826-1888)이 1877년에 찬송시로 작곡했다.

이 곡의 배경은 주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성경 말씀이 그 바탕이 된다. 작사자 메리는 쉬터구아 호수 언덕에 서서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의 많은 무리들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여든 것을 보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생명의 떡을 먹여 주신 것처럼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배 부르게 해 달라는 간구를 시로 쓰게 된 것이다.

1절은 예수께서 뱃새나 뱃 물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마른 사슴이 사사들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무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

2절은 영생의 말씀이신 우리들의 주님께서 목 마르고 갈급한 심령인 우리들에게 과거 갈릴리 해변에서 하신 양식으로 그 주님을 만해 주신 것처럼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실 것을 찬양한다.

3절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 얽매인 우리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슬을 끊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찬양한다.

4절은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영이 밝아지며,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우리가 진리를 바로 발견하고 깨달아 알도록 생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찬양한다.

이제 2005년 여섯 번째 성찬식이 다음 주에 시행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의 많은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주의 성찬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전일위원회)

새·가·록·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488	오경애	17	장년1부	장영선(9)	2509	김정원	19	청년1부	장영선(17)
2489	김진아	5	장년1부	조윤연(9)	2510	홍세미	19	고등부	김신영(9)
2490	임지영	8	청년1부	이영혜(9)	2511	최승영	19	청년1부	신미현(10)
2491	권영순	6	청년2부	권애숙(19)	2512	김지혜	19	고등부	김혜연(19)
2492	서빛나	19	고등부	서은숙(9)	2513	김선경	6	청년2부	이상진(16)
2493	서슬기	19	고등부	오정혜(9)	2514	박우주	19	청년1부	김영모(5)
2494	박태서	13	장년2부	김향국(1)	2515	이영희	11	소망부	송광주(11)
2495	이영준	2	대학부	박순현(9)	2516	송재민	10	청년2부	박영선(9)
2496	김홍진	1	장년1부		2517	정혜정	19	청년1부	박태진(10)
2497	김미재	1	장년1부		2518	고재훈	19	청년1부	
2498	오영옥	5	장년1부	조종현(14)	2519	정승민	19	청년1부	
2499	황창대	19	대학부	정은숙(17)	2520	홍석진	19	대학부	윤신주(9)
2500	이유진	19	청년1부	염주현(9)	2521	이현주	8	청년2부	고국호(17)
2501	이영희	8	장년2부	이혜재(14)	2522	홍길라크	19	외선부	나래(19)
2502	문미선	2	장년2부	권아숙(1)	2523	슈 유	19	외선부	김성태(13)
2503	박민성	7	대학부	박승준(7)	2524	노 바	19	외선부	
2504	박영희	6	장년1부	이진구(9)	2525	김광두	19	외선부	
2505	이영권	19	청년1부	이영진(2)	2526	티 현	19	외선부	
2506	배남환	10	장년부	유정순(7)	2527	티 땅	19	외선부	
2507	채희진	19	고등부	이형수(7)	2528	송 준	19	외선부	
2508	김경선	19	청년1부	최호일(15)					

※ 찬송회의 한 가락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록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 ② 충성의 모든 청지기과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지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게 하소서.
- ③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발관자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주옵소서.
- ④ 매월 둘째 주 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 ⑤ 모든 위원회와 속회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헌복직단이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케 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치·성서·문화)은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하소서.

A stylized map of the Gyeongju Museum area. The map features several labeled locations:

- Top Left:** ↑안남교로
- Top Center:** ↑동문대로
- Top Right:** ↑성주대로
- Middle Left:** 리스탈론호텔
- Middle Top Left:** 주야병원
- Middle Top Center:** 송원교회 (Illustration of a church)
- Middle Top Right:** 문화과학관
- Middle Bottom Left:** 금강빌
- Middle Bottom Center:** 신정신학대학
- Middle Bottom Right:** 영동문화사
- Bottom Left:** 기림미술관
- Bottom Center:** 성서대학교 (현대 미술관) (Illustration of a modern building)
- Bottom Right:** 조선시대 회화관
- Far Bottom Right:** 실감 →

■ 위임목사 김 석 관

고종대 국무총리	정경헌 1867~1871	박건희 학사부주 1871~1874	류병희 군주 1874~1877	김영훈 군주 1877~1881
여극근	안상환 대학부 1881~1884	나광영 1884~1887	정진호 군주 1887~1891	김윤덕 군주 1891~1894
고광환	위관란 세자교육원 1894~1897	김익환 1897~1900	장 훈 1900~1903	이현덕 1903~1907
이희식	최희철 국무총리 1907~1910	하종철 1910~1913	안치현 1913~1916	정홍신 1916~1919
양재홍	이정선 국무총리 1919~1922	조광구 1922~1925	최성규 1925~1928	이계영 1928~1931
이건준	이승훈 국무총리 1931~1934	김준희 1934~1937	윤승일 1937~1940	황진섭 1940~1943
정석영	이경훈 국무총리 1943~1946	김대석 1946~1949	김성훈 1949~1952	

● 여전도사

신동주 1867~1871	윤운식 1871~1874	한영준 1874~1877	김연식 1877~1881	홍순애 1881~1884
이옥주 1884~1887	김발파 1887~1891	안태순 1891~1894	김경전 1894~1897	조옥자 1897~1900
경덕필 1900~1903	최윤선 1903~1907	전은희 1907~1910	김영순 1910~1913	김경자 1913~1916
이수경 세자교육원 1916~1919	김경희 1919~1922	이복순 1922~1925	류진희 1925~1928	한성임 1928~1931
임태주 1931~1934	강영자 세자교육원 1934~1937	오미자 1937~1940		

■ **차량감돌 강입구**

■ 전일지휘자 서준성 김위성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선교사 수요한